

## 부산시민의 A형간염 항체양성률 및 예방접종 실태 연구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A형간염 환자수는 2013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부산의 경우, 2016년 들어서는 예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A형간염의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부산시의 관련 대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A형간염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고, A형간염 취약 연령층에 대해서 예방접종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여 A형간염 예방접종 현황과 인식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II 연구개요

- 기 간 : 2017. 1. ~ 2017. 12.(1년)
- 대 상 : 부산지역 거주민
- 시험내용(항목) 및 방법 :
  - 〈부산시민의 A형간염 항체 양성률 조사〉
    - 부산관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A형간염 항체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 검사결과 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들의 검사결과를 보건소로부터 취합
    - 정보 제공 동의 외, 성별, 연령, 거주지에 대한 기본정보와 A형간염 검사이유 등 조사
  - 〈부산시민의 A형간염 예방접종 실태 조사〉
    - 우리원에 견학이나 체험교실 혹은 현장실습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A형간염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III 연구결과

- 부산관내 보건소에서 A형간염 항체 검사결과 정보제공에 동의해 준 사람들은 1,167명이었고, 그 중 부산에 거주지를 둔 사람들 1,132명에 대해서 A형간염 항체 양성률을 조사 함
  - 1) 전체 A형간염 항체 양성률은 40.2%였고, 남자는 47.2%(142/301), 여자는 37.7%(313/831) 였음
  - 2) 연령에 따른 A형간염 항체 양성률의 결과는 10세 미만 연령층은 100%의 양성률을 보였고, 10-14세 연령층은 50%의 A형간염 항체 양성률을, 15-19세는 35.4%, 20-24세는 25.9%, 25-29세는 20.9%, 30-34세는 20.7%, 35-39세는 26.3%, 40-44세는 48.6%, 45-49세는 73.8%, 50대 이상은 95.7%의 항체 양성률이 확인됨.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는 항체 양성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나 이들 연령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연령층으로 확인됨

- A형간염 취약 연령층에 대한 설문조사는 우리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참여자는 총 136명, 연령별로 20대 110명(80.9%), 30대 9명(6.6%), 40대 이상 17명(12.5%)이었음
- 1) 응답자의 47.1%는 A형간염을 전혀 ‘모른다’라고 답변하였고, A형간염 정보 습득 경로는 ‘학교’와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았음.
- 2) ‘A형간염 예방접종 여부’에 대한 답변은 79.4%가 ‘접종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미접종 이유에 대한 답변은 ‘잘 몰라서’로 답변한 응답자는 58.9%였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6.8%였고, 예방접종 계획에 대한 답변은 ‘예방접종을 맞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9.3%였고, ‘예방접종을 맞지 않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9.8%였음
- 3) A형간염에 대한 부산시의 우선 조치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A형간염 예방접종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57.9%로 가장 많았고, ‘예방접종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0.9%, ‘개인위생 관리 등의 홍보’는 11.2%였고, 부산시의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시, 예방접종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4.3%가 ‘예방접종을 맞겠다’고 답변하였음

#### IV | 정책연계방안

- A형간염의 재유행 방지를 위한 정부 및 부산시의 A형간염 예방대책 수립 시, A형간염 취약 연령층에 대한 효율적 예방정책 제시

#### V | 활용계획

- 부산시 및 관계기관에 연구결과물 공유
- A형간염에 대한 대시민 홍보 자료로 활용